2019
SUMMER

VOLUME
06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기쁨을 주는 삶

도서출판
책과마음

CONTENTS

VOLUME 06
2019 SUMMER

108. Nothing to lose / lose nothing 잃을 게 없는 삶/ 잃지 않는 삶 – 김홍일

111. 선교의 그루터기에 남아 있는 불씨를 살리시는 하나님 – 지성구

116.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 장봉인

124. 토마토 생각 – 김영승

126. Galeb Mission Community

표지 이야기

작가 Profile

이춘재
판화 작업 그룹 '판공작소'멤버.
판화와 아크릴 및 다양한 혼합재료로 작업합니다.

[작품명] My Little Garden, 2018.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무럭무럭 자라는 식물들을 보면서,
성장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시간을 보냅니다.

기쁨을 주는 나무

만든 사람들

Publisher 김영승
Managing editor 도미래
Designer 이춘재
Marketing Manager 이미정
Advertising soriel2007@naver.com
홈페이지 www.book-heart.com

통권 6 호

등 록 일 2015년 12월 10일
발 행 일 2019년 07월 10일
발 행 처 도서출판 책과 마음
인 쇄 예원프린팅
정기구독 soriel2007@naver.com

<기쁨을 주는 나무>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
<기쁨을 주는 나무>에 실린 글, 사진, 그림 및 사진은 <기쁨을 주는 나무>의 서면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 장봉인 -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유럽 내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과 교회 연합회 그리고 현지인 및 난민 대상 선교사간 네트워크 연계 사역을 통해 어린이를 섬기는 유럽 어린이 교육 선교회(ECEM) 섬김이 대표 장봉인 입니다.
본 선교회는 2015년 설립된 이래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지에서 만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성경에 익숙한 사람'으로 세움에 있어 작게는 가정, 크게는 교회, 나아가 연합 단체들과 함께 협력, 조력, 동역하는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www.europacem.com)

선교사로의 부르심

초등학교 4학년 즈음, 아버지를 통해 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중간중간 깨알같이 나오는 2~3번의 배우의 애드리브 외에는 전반적인 흐름이나 후반부 내용에서 10살 아이가 자발적으로 반복하여 볼 정도로 흥미나 재미를 줄 만한 요소는 없는… 그런 영화였음에도 틈나는 대로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러다 비디오 테이프가 늘어나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지요.
그렇게 되는 동안 그 내용은 고스란히 제 마음과 머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군가 꿈이 뭐냐 물으면, 참 겁도 없이 "순교요"라고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앙의 모델이자 제 안에 큰 꿈을 심어준 통로가 되어 주시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 15살 때부터 틈틈이 신문, 전단지 돌리기와 세탁소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누군가 꿈이 뭐냐 물으면, 그때도 "순교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청소년기가 지나갔는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 군대를 다녀 온 후, 고등학생 때부터 스텝으로 참여했던 어린이 연합 사역에서 – 참 신기하지요 – 성극으로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차수, 마지막 날 저녁 집회 후 기도 중에 마음속에서부터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꿈이 뭐냐" 그리고 그때도 대답했습니다. "순교요"

어릴 적부터 저에게 순교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신에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부르심을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셨고, 잊고 살 수도 있었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다짐하게 하셨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로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된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푯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이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닐까요?

독일로의 부르심

독일로 오게 된 계기는 선교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선택하게 하신 시간들을 통해 지금 이곳에서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듯합니다.

신학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을 때에는 총신의 교훈처럼 신자, 학자, 성자, 전도자,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학부 1년을 마칠 즈음 인도로 1년간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영적 지도자 훈련원의 조교로 3년의 시간을 섬기며, 성장했던 모교인 꽃동산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며, 허락하신 신학교의 학생답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사역은 전도 특화 부서였습니다.
매년 초 0명에서 시작하여 한 해 평균 200~300명의 아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며, 동시에 교사들을 양육자와 전도자로 세워 가는 전도 특화 부서 '무디부'에서 3년여간 사역하였습니다. 조부모 가정의 아이들,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 맞벌이 부모 가정의 아이들 등을 만나며 한 영혼의 구원에 있어 어린이 세대 사역의 중요성과 절대적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세대가 자라나며 자의적, 타의적으로 접하게 될 무신론(Atheism), 범신론(Pantheism), 반신론(Antitheism) 등의 환경에 대한 기독교 변증적 사역을 하였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한편으로는 인격적으로 신앙을 경험케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다각적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사역자에게 도전과 귀감이 되는 훌륭한 교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과 그들을 양육해야 할 교사들을 위한 양육을 준비하는 훈련을 시켜주심으로 사역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던 중 4년 차에 하나님은 저에게 요셉이 경험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억울하고, 암담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서 한국에서의 사역과 신학 공부… 거기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보여 주실' 막연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아오게 된 곳이 아는 이 하나 없는, 보장 된 것 하나 없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변변치 않았던, 독일이라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집중하게 해 주셨고, 삶의 지경을 신학교에서 사역지로, 그리고 지금의 선교지로 옮겨 주신 것이지요.

아이들을 위한 부르심

독일에 올 때 수중에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신학과 사역, 그리고 사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졌을 당시, 막연하게 '독일'이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때에는 유학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게 해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독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를 회복시키시고, 동시에 부르심을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함 이였음을 고백합니다.

독일에 와서부터는 유학준비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런데 온 지 반년이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군요. 그때 섬기던 이민 교회의 지원으로 더 머물 수 있게 되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곳의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고,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유학 준비보다 이민 교회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절 이민 교회를 섬기며 지원받는 사례비로 월세와 어학 비용을 해결하고 남은 23유로로 한 달을 살아가며,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듯, 2주에 한 번씩 쌀 10kg를, 냉장고에서 떨어질 만하면 돼지 등뼈와 김치를 귀한 분들을 통해 지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이민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를 보내신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애통함을 다시금 느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러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유럽의 상황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유럽에서 현지인과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인 신앙 공동체가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었던 1세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그들을 위한 섬김을 시작하게 하셨고, 나아가 이민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의 자녀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이민 교회들의 어린이 세대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은 그 동안 한국에서 고민하고, 훈련받던 어린이 세대 사역을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하게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사역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베를린을 중심으로 유럽 내 국가의 어린이 세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동시에, 짧지 않은 시간 섬겼던 이민 교회에서도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국에서 겪었던 것을 다시 경험케 하셨습니다. 억울하고, 암담하고, 막막한….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최고 수혜자인 이삭이 경험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민 교회에서의 사역이 중단되면 베를린에서의 생계와 거주, 하라고 허락해 주신 사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비량 사역으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베를린 내·외부 어린이 세대 연합 사역을 본격적으로 섬기게 해주셨고, 거주(비자) 문제와 생계 문제를 그 누구도 예상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는 모두의 생각을 뛰어넘어 독일이라는 빈틈없는 사회에서도 흠잡을 수 없는 이상적이고 온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며, 앞으로 더욱 선명하게 부르심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강미연)와 두 아들(환희7, 찬희2) 그리고 11월에 태어날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선, 후배 사역자 분들과 때마다 필요에 따라 만나게 하심으로 충원된 회원들과 함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선교회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역 전문 사역자 5명 / 교사 및 간사 6명 / 스텝 및 회원 4명과 함께 베를린 내·외부에서 연평균 10회의 연합사역(말씀사경회, 성경학교, 연합집회, 수련회)을 섬기며 매월 둘째 주 GSM 세계 선교 중보 기도회와 연 2회 GSM 선교의 밤(연합 찬양집회 및 후원회)을 섬기고 있습니다.
베를린 내 고정 사역으로는 매 주일 마다 베를린 비전교회와 연계 사역으로 지역 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연합 어린이 예배(위탁형)를 섬기고, 요청하는 가정과 신앙 공동체 그리고 연합회에서의 어린이 사역 지원을 위한 양육 콘텐츠를 연구·개발·제작하여 지원(자료 요청형 – e주보)해 드리는 Daniel Project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외부 사역의 경우 매년 1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회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요청된 사역 중 10개의 사역을 선정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지속하게 하신 분도 지존하신 하나님 한 분 이시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억울함과 그 후의 신원해 주심으로 회복과 연단을 이루시고, 부르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순간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 가까워집니다.

부르심의 기쁨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을 느끼는 순간을 적어둔 노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노트가 일기처럼 매일 새롭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이곳에 쓸 수는 없기에, 공통점을 모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부르심에 맞게 사용되었던 때와 부르심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한 주님의 이끄심(연단, 만남, 섭리하심)을 느낄 때"입니다.

그 중 어느 지역의 교회 연합회와 연계 사역 중에 만났던 한 아이가 생각납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이 예배자로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한국인이 많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은 또래의 아이는 전무하였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은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같은 경험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아이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도구는 구할 수 있고 가지고 있었지만 꿰어지지 못한 구슬 서 말과 다르지 않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민교회 목회자의 자녀였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이 시작되는 첫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놀랍게 그 아이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영혼이 기뻐 뛰는 것을 처음 느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은 다윗이 왜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 뛰었는지가 이해될 만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이 2박 3일의 시간이 자신을 위해 예비해 주신 것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배움의 시간에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즐거움이 주변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이는 모임 장소에 와서 기다렸고, 식사 시간에 맞추어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면 식사하러 가는 내내 다음 프로그램에 대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것들이 꿰어지지 않고 마음과 머릿속 여기저기에서 굴러다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하나 꿰는 즐거움이 뭔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디에 꿰어야 할지 모르는 구슬들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번에 처음 만난,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를 저에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재미있었고, 행복했어요."

사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요즘 어린이 사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친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에 대해 가볍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양도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알려주기 위해서 때론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재미있었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이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8시간을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아이의 표정과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고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모든 상황과 만남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감당할 수 있게 연단하시며, 놀랄 수밖에 없을 만큼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매 사역마다 경험합니다. 그 놀라운 삶을 함께 동역하는 선교회 회원들도 하나 둘 경험하고 있어,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을 나누게 하시니 매일 매 순간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오해 받아 보셨나요?

저는 어릴 적 가장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버님의 물건이 없어져서 도둑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원도 태백 탄광촌에서 저희 집은 가난한 걸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정도의 상황이었고, 그 친구는 가장 부유한 집이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여하튼 그 일은 저에게 평생 상처이자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뿐 아니라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기도 하는 구나…….

참외 밭을 맨발로, 두 손을 하늘로 들고 지나가도 참외뿐 아니라 수박 도둑으로도 몰릴 수 있구나…….

오해 받을 만한 일이면 흉내도 내지 않고,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사역했던 모교에서도, 베를린에서 오롯이 집중하며 사역했던 이민 교회에서도 억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독립 사역의 현장에서도 오해받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베를린에만 2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이민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와 신앙 교육이 상황과 여건과 환경의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선교회를 설립할 때 주셨던 감동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에 따라 모든 사역을 무료로 섬겨드리고 있습니다. 혹 재정 때문에 사역을 못하게 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자비량으로 사역에 필요한 비용과 교통비를 포함한 모든 지출을 집행합니다. 현재 저희 선교회에 속한 사역자, 회원 모두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기에, 그 은혜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이단 시비가 있기도 했고, 나중에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받고, 때론 어떻게 믿음 있다는 분이 저렇게까지 생각하실까 할 만큼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고요?

감사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오해받을 만한 언행이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내 자신을 살피며, 겸허히 그 시간을 감내하는 것이 오히려 그 시간

을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은혜의 수혜자의 자리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기에 그럴 때면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 모든 상황을 풀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달래 주실 하나님 품에서 그냥 웁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장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지만, 저는 그분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양육 내용, 목소리 톤, 표정 등을 모두 기억하지만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사역자로서는 단점이자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대할 때도 나는 잊힐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대신 하루가 되었든, 3일이 되었든, 아니면 일정 중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든 함께 예배드릴 때 저와 저희 선교회를 통해 받은 양육의 내용들은 마음속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사역 대상인 아이 개인에게도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제공해 주는 섬김을 지속해 가길 원합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알아가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면서 잊히는 게 당연하지만 그 내용은 마음속에 평생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사역에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들 하나같이 이야기 하지요. 어릴 적 암송했던 말씀이, 흥얼거리던 찬양이, 주일 학교 경험이 방황 후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된다고요.

아이들 마음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맛보아 알게 되어 세상의 말초적이고, 한시적인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잘 모르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떠한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세워주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즘은 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틈나는 대로 선교 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앙 서적을 자

유롭게 대여하고, 신앙 교육을 위해 부모와 교사, 사역자들이 모여 상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유럽 내 선교사님들이 부담 없이 만나 교류하고, 서로 훈련하고 훈련받는 공간. 선교의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나누고 기도 제목을 얻어가는 공간. 난민들을 위한, 특별히 어린이 난민을 위한 구호품을 모으고, 보관하고, 분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될 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합 행사를 위한 장소는 하나님께서 베를린 비전교회와의 연계 사역을 통해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쉼이 필요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저희 집이, 5명 이상의 팀이 오실 경우에는 숙박업소가, 그 이상 인원이 오실 경우 지낼 수 있는 단체 숙소로서의 장소도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위에서 말씀드린 용도로의 센터 장소를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아이일 때 부르심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섬기듯, 주님이 섬기시듯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 기회를 통해 묵직한 질문 하나하나에 답하기 위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느끼고,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봉인 선교사

총신대 신학과 졸업
유럽 어린이 교육 선교회 대표
GSM 선교회 유럽 코디